

이승만 측근이 변조한 안두희 자서전 《시역의 고민》

위서의 사회사 — 13

김삼웅 | 《대한매일》 주필

백범 김 구 암살의 하수인 안두희는 《시역의 고민》이란 책을 남겼다. 자신이 '우국충정'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범행한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쓴 책이다. 안두희는 옥중일기를 쓰게 되고, 이것을 건네 받은 김창룡 일당은 윤문의 상태를 넘어서 크게 변조해 책을 만들었다. 변조의 핵심은 백범을 용공으로 몰아치면서 그를 살해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었다는 점 그리고 한독당의 노선을 좌경으로 왜곡하는 내용이었다.

백범 김 구 암살의 하수인 안두희는 한 권의 책을 남겼다. 이름하여 《시역(弒逆)의 고민(苦悶)》이다. 1955년 11월 학예사에서 출판된 이 책은 '안두희의 수기'라는 부제로 세상에 나타나고, 정부 각 기관, 사회단체, 군부대, 학교 등에 배포됐다. 본문 130쪽에 서문과 발문이 붙은 구 국판형이다.

이 책은 백범 암살의 배후로 혐의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을 '보호'하고 어디까지나 안두희가 '우국충정'에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범행한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간행됐다.

백범 암살이 단독범행임을 알리기 위해 발간돼

안두희는 백범 살해범으로 체포된 다음날부터 육군 중앙고등군법회의가 열린 정동 특별법정으로 출두하기 바로 전날까지(1949년 6월 27일~8월 2일)의 '옥중일기' 형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기록했다. 당시 일반 정치범이나 잡범들이 감옥에서 집필하는 것이 금지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두희의 집필은 처음부터 암살 배후 세력의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안두희는 백범 시해 진상규명위원회의 김석용씨와 함께 한 '육성녹음'에서 "소위 특무부대니 뭐 김창룡이니 인천의 김일한이니 이 사람들의 권고가 있어서 쓰긴 썼지만, 맨 처음은 나두 거 쓸 맘이 있어서 썼다"고 밝혔다. 어쨌든 안두희는 옥중일기를 쓰게 되고, 이것을 건네받은 김창룡 일당은 윤문의 상태를 넘어서 크게 변조해 책을 만들었다. 변조의 핵심은 백범을 용공으로 몰아치면서 그를 살해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었다는 점 그리고 한독당의 노선을 좌경으로 왜곡하는 내용이었다.

이승만의 측근들은 정치적 라이벌을 죽이고 땅속에 묻힌 사체도

두려워서 암살자의 이름으로 백범의 사상과 노선을 '부관참시'한 것이다. 안두희는 '육성녹음'에서 "나중에 책이 돼서 나온 걸 보니까니, 뭐 신태양산가 어딘가에서 한 거 같은데, 중간에 거저 내가 쓴 원고와 딴 원고입디다"라고 '변조' 사실을 입증했다.

배후세력은 변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책의 발문에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 신경과민인지는 몰라도 이 출판준비에 착수하자 들리는 풍설이 이것은 부러 일기체로 꾸며가지고 당시의 옥중기로 가장하여 최근에 창작한 위조품이다라고 한다는 데에는 참으로 마음이 아픡니다"고 썼다. 어디까지나 안두희의 작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자식' '제자' 등 어울리지 않는 용어 사용해

《시역의 고민》에서 안두희는 출판 직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서문에 "삼가 이복에 계신 아버님께 올립니다"라고 해 부친에게 자신의 시역행위를 털어놓고 있다. "아버님! 5년 전 6월 26일 그날 두희가 꿈 아닌 생시에 두희가 제 총을 가지고 제 손으로 분명히 김 구 선생님을 쏘았습니다. 일찍 아버님께서도 경모 숭배하시든 백범선생을 아버님의 자식인 두희가 제 정신으로 살해하였습니다"라면서 "만약 재세(在世)하시지 못하신다면 이 글을 그대로 제문으로 삼으려 하옵니다"고 밝혔다.

민족의 지도자 백범을 살해한 데 대한 속죄의 마음을 부친에게 전하려는 '인지상정'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변조자들의 목적은 암살범을 동정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안두희가 백범을 죽이게 된 동기와 과정을 리얼하게 위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건 발생 4일 후인 6월 30일자 기록, 즉 살해과정의 정황은 이 책의 백미를 이룬다.

변조자들은 일개 포병 중위가, 그것도 단 3~4회 밖에 만난 적이 없는 처지의 군인이 백범 면전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식' '제자' 운운하면서 따지는 것처럼 쓰고 있다. 변조된 핵심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소 표정은 부드러운지셨으나 어조는 역시 거칠으시다. "국회소장과와 선생님 사이에 일찍부터 내통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정평

이요, 이번 그들 피검시 김약수를 선생님께서 숨기셨다는 억측까지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선생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정말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상이 아무려면 어때, 또 공산당이라면 어때!”

“그러시면 공통된 노선이란 말씀이십니까?”

“네 멋대로 해석하렴.” (중략)

“협상 다녀오신 후의 태도는 어떠하셨습니다. 미군의 철퇴를 주장 하였고 미국의 원조를 거부하였고, 유엔의 처사를 비방하시면서 급 기야는 5.10 선거까지 부인하신 것, 어떻게 그렇게 그 주장하심이 공산당과 꼭 같으십니까?”

“그러면 이놈! 내가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단 말이나?” (중략)

나의 언성은 높을대로 높았다. 선생님도 노기 등등한 안색으로 안 절부절 하시면서,

“무어야? 이놈 죽일놈? 입이 달렸다고 함부로 지껄이는 거야.”

고성을 지르신다. 인제는 피차 사리를 가릴 이지의 여유를 잃었다.

“여순반란은 누가 교사한 것입니까?”

“머야 이놈.”

주먹으로 서안을 치신다.

“표소령, 강소령과 기거를 같이하는 놈은 어떤 놈입니까.”

“저런!”

책뭉치가 날라온다. 얼굴에 맞았다.

나도 주먹을 부르쥐고 고성을 질렀다.

“송진우씨는 누가 죽였습니까?”

벼루가 날라와서 머리를 스치고 뒷벽에 부딪친다.

“장덕수씨는 누가 죽였습니까?”

“이놈! 너 이놈!”

붓이 날라오고 또 책이 날라오고 종이 뭉치가 날라오고.

“특무대장 김창룡이 주도한 변조행위는 그후 정적을 때려잡는 수법으로 전승되고, 이같은 정치군인들의 ‘권력 맛’ 은 3대에 걸친 군사정권으로 이어져 우리 현대사를 퇴행시키는 요인이 됐다.”

나는 고개를 수구리고 잠깐 생각의 여유를 포착하려 했다. 무슨 말씀인지 기억은 없으나 선생님께서는 노호를 계속하시는 것이다. (중략)

뒷 허리를 스친 나의 오른편 손에는 어느새 권총이 뿔뿔했다. 반사적으로 움직인 왼손은 날새게 총신을 감아쥐었다. 제끄덕! 총탄을 하면서 얼굴을 들었다. 앗! 선생께서 그 거구를 일으켜 두팔을 벌리고 성낸 사자같이 엄습하여 오는 것이 아니냐. 눈을 감으며 방아쇠를 당겼다.

“영감과 나라와 바뀐다.” 고성인지 신음인지 나도 모르는 소리를 지르며...

빵! 빵! 빵! 유리 깨어지는 소리. “으응” 하는 비명, 코를 찌르는 화약냄새.

대화 나는 게 아니라 미구 싸

변조자들의 필력은 뛰어나다. 암살자의 입을 통해 백범을 용공주의자, 여순사건 교사자, 송진우·장덕수 암살 배후 등으로 채색한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이 얼마나 픽션에 불과한 것인가는 금방 드러난다.

안두회를 경교장 2층으로 안내했던 선우진 비서(81)의 증언에 따르면 백범 피격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뤄졌다. 무슨 대화를 나는 게 아니라 안이 백범을 보자마자 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또 4·19 직후인 1961년 4월 17일 서울에서 안두회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던 김용희씨는 당시 안두회로부터 이런 자백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경교장 2층에 올라가 인사를 드리는 척하다가 ‘선생님!’ 하고 부르니 백범이 쳐다봤다. 그순간 그대로 방아쇠를 당겼다.”

안두회는 ‘육성녹음’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실을 확인한다. “그대루 그저 나두 모르게 총을 빼자마자 한발 갈기니까니, 벌써 어데 두골에 맞아서 말두 못하구 팍 쓰러지는데, 그다음에 뭐 그저 무조건 더, 몇방 더 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구선 완전히 선생이 쓰러지드만요.”

안두회가 쏜 4발의 흉탄은 제1발과 제2발은 머리를, 제3발은 앞가슴을, 제4발은 아랫배에 명중됐다. 사건 직후 총소리를 듣고 2층으로 뛰어올라간 비서들이 백범을 일으키려 했으나 이미 치명상을 입은 후였다.

암살 배후 세력은 《시역의 고민》을 변조하면서 백범의 노선과 한독당의 행적을 거냥했다. 가고 없는 지도자, 이미 해체된 정당의 이름마저도 독재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한독당과 관련한 변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악착스럽게도 의사를 농단하려고 발호하는 반동배소위 국회소장파의 노선과 한독당의 지론이 어찌면 그렇게도 부합될 법인가. 공산당프락치 국회 소장파 주도배의 본거이며 참모부가 경교장이라는 세론도 중상만이 아닐 것이니 지금까지 반동적인 정치사범의 배후 관계를 캐고 들어가면 거개가 경교장이라는 미궁으로 숨어버린다는 이 사실을 제아무리 현하지변일지라도 도저히 이를 반증치는 못하리라.”

반민특위에서 친일파 척결을 주도한 국회 소장파 의원들은 우리 현대사의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인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대부분 제거되고, 그해 여름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 습격과 백범 암살로 이어지는 ‘굴절의 역사’가 자행됐다. 특무대장 김창룡이 주도한 《시역의 고민》과 같은 변조행위는 그후 정적을 때려잡는 수법으로 전승되고, 이 같은 정치군인들의 ‘권력 맛’은 3대에 걸친 군사정권으로 이어져 우리 현대사를 퇴행시키는 요인이 됐다. ■